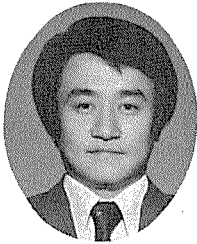


國際 石油情勢와

韓國의 에너지 政策



趙 東成

(서울大經營大·教授)

I. 序

筆者가 하버드大學校에서 경영학 博士過程을 막 시작하려는 1973年 가을, 같은 과정에 있던 先輩하는 3년여의 작고 끝에 드디어 學位論文을 완성하고, 바야흐로 指導教授의 논문심사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논문 제목은 「國際 石油市場에서의 油價決定 理論」. 그러나 論文 심사를 며칠 앞둔 10월의 어느 날, 제 4차 中東戰爭의 余波로 사우디·아라비아는 對西方 石油禁輸 조치를 단행했고, 이는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油價體系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 선배의 論文이 한낱 가치없는 휴지조각으로 전락되고 말았음도 물론이다. 결국 그 선배는 논문제목을 새로 선택하여 經營學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3년이 지난 후였다.

本稿의 제목인 「國際 石油情勢에 대한 展望」은 제 아무리 에너지 分野의 세계적 權威라 할지라도 自信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지난 두 차례의 石油危機와 그밖의 油價引上이 모두 예측가능한 石油産業內의 상황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 4차 中東戰爭(1973) 이란革命(1978-1979), 이란-이라크戰爭(1980)과 같은 국제정치적인 突發사태가 原因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原油需給 사정 및 油價變化에 있어서도 에너지産業 내부의 상황변화보다는 外邊의인 원인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與件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국제석유정세를 判斷 하는데

있어서는 에너지産業 자체에 대한 專門家보다도 국제정치적 감각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헨리 키신저나 무바라크 大統領과 베긴 首相, 중동지역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가진 그리고 OPEC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야마니 石油相이 훨씬 더 적절한 人物이 될 것이다.

外邊的 要素가 얼마나 중요한 役割을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지난 4월 25일을 전후한 中東地域의 정세는 필자로 하여금 本稿의 작성을 지연시키게 한 동기가 되었다. 石油協會에서 筆者에게 원고 의뢰를 한 것은 지난 4월 초였으나, 그 당시 필자는 4월 25일에 예정되었던 「이스라엘의 시나이半島 철수」가 과연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만일 이것을 계기로 하여 제 5차 中東戰爭이 발발한다면 국제 石油情勢는 필연코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이다. 筆者가 시나이半島 문제를 심각하게 念頭에 두었던 것은 이스라엘軍의 시나이半島 점령을 둘러싼 양측의 對立이 그동안 中東地域에서 야기된 紛爭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理由외에 日本의 總合商社에서도 제 5차 中東戰爭의 발발을 予見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갖추고 있다는 情報를 入手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筆者의 예견은 4월 20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함께 現實化되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이후 中東에서는 별다른 사태의 진전이 없이 주둔군의 交替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제 5차 中東戰爭의 가능성도 당분간 사라진 셈이다. 과연 日本

총합상사의 정보가 틀렸는지, 또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일어난 英國과 아르헨티나間的 포클랜드 섬을 둘러싼 무력충돌이 美國으로 하여금 戰雲을 가라앉히도록 만들었는지는 筆者의 능력으로 도저히 알아내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亂氣流하에서 國際石油情勢의 展望을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필자가 시도할 수 있는 研究의 限界는 분명해 진다. 즉, 지금까지의 국제석유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의 에너지政策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未來의 국제 석유정세에 영향을 주는 관련情報을 수집하여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 政策의 적응성 및 상황변화에 대한 彈力性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서 필자 나름대로의 政策代案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國際石油情勢의 어제와 오늘

그동안 우리經濟는 한번도 石油供給不足에 따른 物量制限을 피부로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우리의 石油需要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1%도 채 안되는 낮은 水準인 까닭에 정부당국에서 약간의 노력만 하면 값은 비록 높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物量은 現物市場에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觀點에서만 본다면, 우리는 1974년 한때 石油在庫가 바닥이 나서 消費者에게 공급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美國보다도 오히려 더 여유있는 石油 소비생활을 누려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石油危機가 발생할 때마다 당장 目前에 닥친 原油供給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고, 그때마다 충분한 事前的 대비가 없었음을 한탄해 왔다. 따라서 1973년부터 시작된 대륙붕 油田開發사업(과거정책 1)을 통하여 自主의 원유공급을 기대하는 한편, 1979년의 제 2차 石油危機와 함께 石油메이저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政府間 거래(GG)에 의한 原油供給 교섭에 나서게 되었으며 1980년초부터는 綜合商社를 비롯한 민간상사에게도 직거래(DD)의 길을 터 줌으로써 產油國과의 多角의인 유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과거정책 2). 그 결과 78년까

지만 해도 우리의 필요물량 100%를 供給해 주던 메이저의 역할은 81년에 42%로 줄고 대신 6개 민간상사가 8개국으로 부터 도입하는 直去來 베이스의 물량이 58%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 2차 石油危機와 함께, 自慢과 함께 욕심이 생긴 일부 석유국들이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멋대로 原油價를 上昇시키게 됨에 따라 국제원유가는 多元化현상을 보이게 되었고, 그 결과 제각기 다른 產油國으로부터 필요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 石油会社들은 격심한 原價構造上的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不均衡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이미 제도화한 石油備蓄基金(과거정책 3)과 함께 石油安定基金制度를 채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原油導入先의 다변화를 계속 추구하게 되었다.(과거정책 4)

이와 동시에 脫石油政策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연탄 및 LPG輸入을 장려하였으며, LPG 수입도 머지않아 실현될 전망이다.(과거정책 5)

이와 동시에 벵커-C, 나프타, 등유 등 석유제품이 국가경제 및 民生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石油製品價格을 告示制度로 묶음으로써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과거정책 6)

그후 1981년에 들어 오면서 국제석유시장은 지난 8년간 겪어보지 못하던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세계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전세계의 석유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代替에너지의 개발 및 石油会社의 보유在庫 放出은 原油供給과 소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한때 1배럴당 42달러에 달했던 現物市場가격은 28달러까지 떨어지는 이변을 연출했으며, OPEC국가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1981년 10월 사우디 아라비아의 輕質油를 기준으로 하여, 배럴당 34달러의 油價單一化에 합의하였고, 그 후 몇차례의 OPEC총회에서 이러한 基準油價制度를 고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금년들어 비약적인 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英國, 멕시코 등의 非 OPEC국가들에 의한 석유시장 점유율이 OPEC보다도 높아지면서 이러한 油價單一化 작업도 별로 큰 实效性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現物價格도 1981년 4월부터 1982년 4월까지 1년동안에 배

□ 特輯：原油導入 □

럴당 평균 10달러씩 인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導入原油가 모두長期계약에 의한 까닭에 이란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公示價格 인하로 인하여 약간의 혜택을 받았을뿐, 現物市場에서의 油價引下가 국내유가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油價平準化를 목적으로 했던 安定基金 제도를 폐지하여 일단 低價原油도입을 장려하고(현재정책 1) 석유수요가 減少함에 따라 조건이 불리한 原油導入先과 도입물량을 축소조정하며(현재정책 2),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油價自律化를 통하여 석유제품 가격을 국제수준으로 接近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현재정책 3)

Ⅲ. 오늘의 에너지 政策에 대한 檢討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현재의 에너지 政策은 기존의 政策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선 安定基金제도의 폐지(현재정책1)에 따라 高價 原油를 들여오던 정유회사들은 이를 기피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低價産油國으로의 集中을 초래하여 原油導入先의 多邊化(과거정책4)와 배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導入物量의 축소조정(현재정책2)은 필연적으로 그동안 政府와 민간상사가 GG및 DD거래를 통해서 다져왔던 産油國과의 다각적인 유대관계(과거정책2)를 균열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과연 앞으로 또 한 차례의 石油危機가 닥칠때, 이들 産油國이 韓國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하여 근심거리를 더해주고 있다. 한편 油價自律化(현재정책3)는 그 취지가 国内 石油製品價格을 국제수준으로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견 그럴듯 하나, 石油製品 소비구조의 국제화가 석유제품 가격의 국제화 보다 先行한다는 기본원리를 생각해 볼 때, 그 目標의 달성 여부가 疑問視 된다.

여기에서 잠깐 소비구조와 價格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해 보자.

국내의 소비구조는 附加價值가 낮은 重質油 위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製品 구성을 그대로 둔 채 價格을 自律化하면 결국 모든 제품가격이 국내수준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假定 1) 原油價 : 34 \$/bl

(假定 2) 부가가치 : 3 \$/bl

(假定 3) 크래킹 : 2 \$/bl

경 질 유	중 질 유	평균
美国 : 0.7 (\$45)	+ 0.3 (\$25)	= 1.0 (\$39)
韓國 : 0.3 (\$51)	+ 0.7 (\$31)	= 1.0 (\$37)

이 계산은 美国에서 배럴당 34달러 하는 사우디·라이트를 크래킹해서 輕質油를 70%, 重質油를 30% 생산한다면 가격이 각기 45달러와 25달러일 때 배럴당 3달러의 부가가치를 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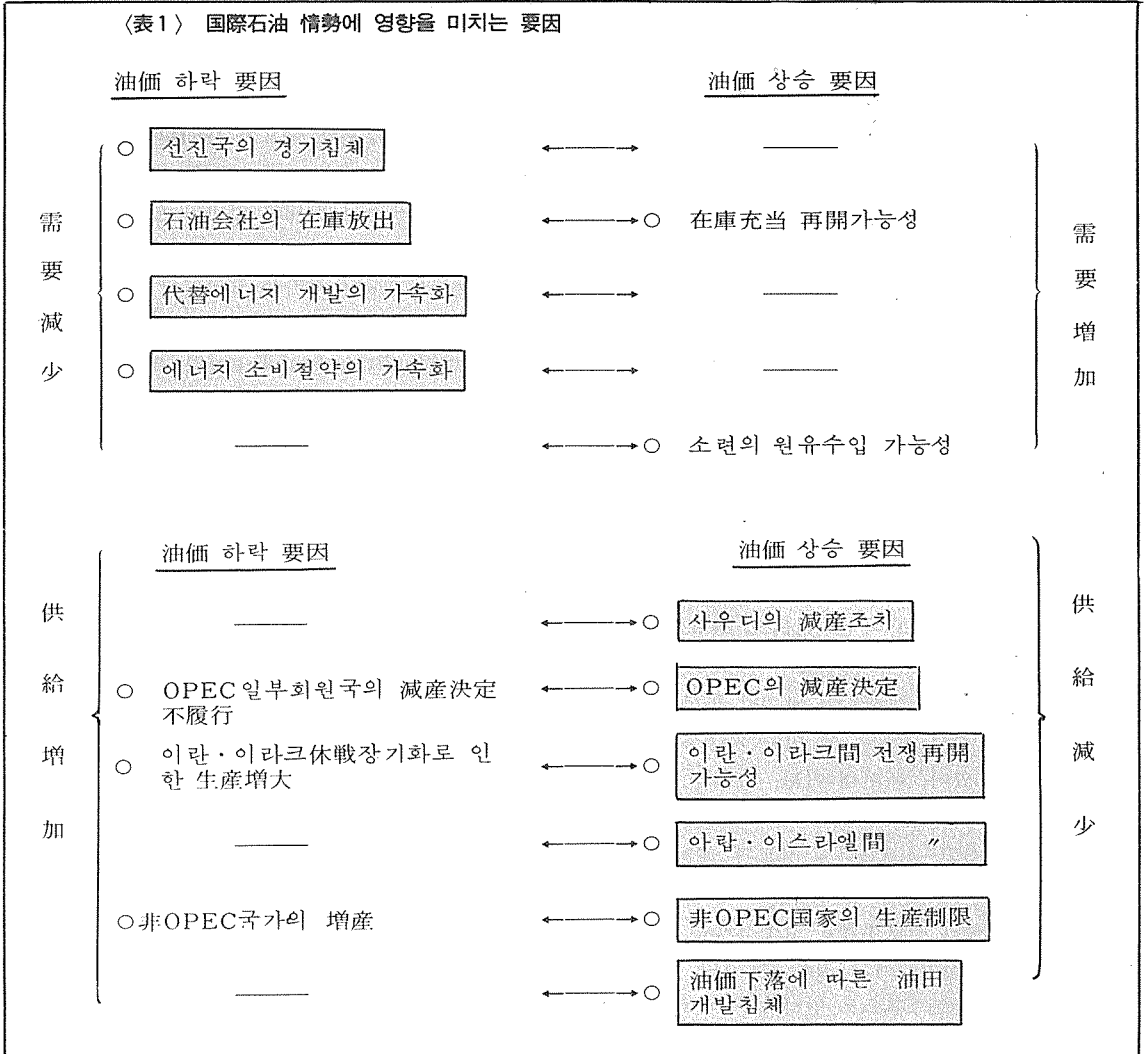
반면 韓國의 경우, 같은 사우디·라이트를 크래킹 없이 精製해서 30%의 輕質油와 70%의 重質油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韓國도 美国과 같이 배럴당 3달러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輕質油와 重質油 가격을 각기 51달러, 31달러에 책정해야 하며, 이것은 美国의 가격수준 보다 각기 6달러씩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시도한 간단한 計算의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제품 가격의 國際化는 석유제품 소비구조의 國際化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 조건의 충족이 선행되지 않는 油價自律化는 결국 모든 石油製品 價格을 국제수준 보다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석유제품 수요자의 國際競爭力을 그만큼 감소시킬 것이다.

Ⅳ. 國際 石油情勢의 내일

그러면 앞으로의 국제 석유정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국제 석유정세에 관한 情報을 供給에 미치는 요인과 需要에 미치는 요인으로 나누어 분류해 보면 <표1>과 같다.

우선 需要에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82년에도 0~3%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83년에도 확실한 상승요인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石油消費量은 4~7%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계속된 전세계의 원유소비량 감소는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表1) 國際石油 情勢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



또한 石油会社들도 油價가 하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하여 原油在庫物量을 계속 감소시키고 있다. 앞으로 유가상승 국면에서는 재고 충당을 위한 原油구매 러시가 일어나겠으나, 현재 그러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石油社의 재고정책은 국제 석유수급의 불균형을 조장하는 요인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油價가 급上昇함에 따라 애당초 10~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던 代替에너지開發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 머지않아 産油國에서의 LNG채취, 가정용 太陽熱이용, 石炭의 액화등이 실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이해되던 石油消費 역시 제 1차 石油危機가 발생한지

7~8년이 지난 오늘날 급격히 감소되어 특히 수송과 산업부문에서 많은 절약효과를 내고 있다. 다만 소련이 급증하는 석유소비량에 비하여 한계에 다달은 生産能力으로 인하여 80년대 中盤에 原油輸入國으로 전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견해도 제시되고 있어 과연 소련이 어느정도 국제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보아야할 문제이다. 이와 같이 수요측면만을 본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需要를 감퇴시키는 要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需要가 增大될 전망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러나 供給側面에 있어서는 需要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최근의 油價下落에 대처하여

□ 特輯：原油導入 □

사우디 아라비아는 원유생산량을 1981년도의 960만 배럴/日 수준에서 이미 790만 배럴로 감소시켰으며, 앞으로 700만 배럴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 이외의 OPEC 국가들도 각기 産油量을 일정수준 감소시키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OPEC 13개국의 産油量이 지난 3월에는 1,840만 배럴/日로 감소되어 1973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란 이라크 등 일부 OPEC 회원국에서는 自國의 사정에 따라 오히려 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英國, 멕시코 등의 비OPEC국들도 계속적으로 원유생산능력을 擴大시켜 사우디를 비롯한 대다수 OPEC 국가의 減産措置를 상쇄시키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세계의 원유생산량은 소비량을 충분히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더 장기적으로 시야를 확대해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즉, 과거에 이란革命으로 인하여 380만 배럴/日, 그리고 이란, 이라크 戰爭으로 인하여 400만 배럴/日 정도 産油量이 감소 되었음을 경험했듯이 세계원유 생산량이 예기치 못한 非常事態에 의하여 급격히 감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이란, 이라크 戰爭이 재개되거나 아랍, 이스라엘간의 5차中東戰爭이 발발하는 경우, 300~400만 배럴 정도의 産油量감소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 장기적인 原油生産을 감소시키는 요소는 석유회사의 경영전략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작년부터 계속된 油價下落으로 인하여 석유회사들은 신규유전개발에 대한 사업전망을 그만큼 낮게 평가

하고 있으며, 기존 油田으로부터의 생산도 예년보다 덜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具體的인 증거로서 美國에서는 油田開發 및 원유생산에 필요한 굴착용강관의 수요가 1981년 이래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韓國의 강관수출도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석유회사의 原油在庫 정책이 원유수급의 불균형을 加速化시키는 요인임에 반해서 석유회사의 油田開發정책은 수급의 균형을 유도하는 자동적 안전판(built-in-stabilizer)인 셈이다.

以上으로 앞으로의 국제석유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을 需要와 供給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히 미래에 대한 전망을 導出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감소로 인하여 原油需給의 균형이 유지되었으나, 장기적으로 그리고 국제정치세력이 급격히 변화하는 국면에서는 供給減少로 인하여 원유수급의 균형이 파괴, 油價의 急上昇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V. 내일의 에너지政策

이러한 국제석유정세 하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에너지政策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우선 II장과 III장에서 검토한 지금까지의 에너지政策을 요약하면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표 2>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과거의 에너지政策이 6項의 油價告示制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급측면, 즉 原油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

<표 2> 어제와 오늘의 에너지政策

과 거 정 책

1. 국내유전 개발(油開公 설립, 韓·日대륙붕 공동개발) →
2. 주요産油國과의 다각적인 유대확립(GG, DD 허용) →
3. 原油비축(석유비축 기금) →
4. 原油導入先 다변화(석유안정 기금) →
5. 代替에너지 도입(석탄, LPG, LNG 도입) →
6. 정부계획에 의한 석유제품 가격조정(유가고시제) →

현 재 정 책

- 계속 시행
- 불리한 도입선, 도입물량축소조정
- 계속 시행
- 저가원유도입 장려(안정기금폐지)
- 계속 시행
- 석유제품 가격의 국제화추구(유가자유화 검토)

이었던데 비하여 현재의 정책에서 보완된 項目들은 모두 수요면에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V章에서 분석된 바와같이 현재의 政策이 수요감소에 따른 국제원유시장에서의 수급균형을 前提로한 短期的인 상황에 대응하여 과거의 정책을 수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評價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현재의 이완된 原油市場 상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급격한 국제정치상황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原油供給 감소에 따른 수급균형의 파괴에 対処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政策對案이 다음과 같은 屬性을 지녀야 한다.

우선 공급면에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은 첫째,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 둘째, 실시의 타이밍을 국제적인 흐름과 반대로 함으로써 購買者市場의 利点を 살려야 한다.

또한 수요면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첫째, 그효과가 확실하고 그리고 신속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실시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原油 安定供給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여건변화에 따라 그 효율성이 사라지더라도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전제로 하여 앞으로의 에너지政策을 구상해 보자.

가) 安定的 供給을 위한 정책대안

① 국내 油田開發사업은 계속 추구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油價下落에 따라 석유회사들이 유전개발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집중할 때, 우리는 油田開發을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시추선 사용과 굴착에 필요한 자재구입에 있어 구매자 시장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7鎭區에서 85년까지 4개공, 87년까지 4개공 시추하기로 되어 있는 기존의 계획을 앞당겨서 조기에 실시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정책1)

② 주요 產油國과의 다각적인 유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미래정책 2). 1973년의 석유禁輸조치에서 우리는 產油國들이 모든 국가에 무차별적으로 수출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美國, 네덜란드등

일부 국가에 대하여 선별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공급부족이 발생했을 때 會員國들이 상호협조하여 부족물량은 서로 분담하자는 IEA의 결정도 정작 1980년 9월의 이란 이라크 戰爭으로 인하여 터어키를 위시한 일부 IEA회원국가에게 격심한 原供給不足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연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보았다. 그나마 IEA와 같은 국제적 협조체제에도 가입하지 않은 우리 나라로서는 전세계적인 原油공급부족상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고아의 입장에 서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서 제시될 비축계획을 조속히 실현함과 아울러 그동안 쌓아온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등의 產油國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즉,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불리한 原油導入先에 대한 도입물량 축소조정」에는 반드시 그 한계가 있어야 하며, 당해국가의 정부가 납득하는 범위내에서 우리의 代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원유공급계약 내용의 불이행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계약 상대방의 產油國으로서의 잠재력 및 韓國과의 신의를 고려하여 계약물량의 축소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③ 原油備蓄은 현재와 같이 現物市場價格이 바닥권으로 내려갔을 때, 이를 구입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미래정책 3). 물론 기존의 장기구매계약마저도 축소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現物市場에서의 구입을 생각하는 것을 비현실적인 착상이라고 비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발등앞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에만 全力을 집중한다면 產油國과 선진소비국, 그리고 국제석유회사간의 고래 싸움에서 우리는 새우등 터지는 입장을 언제까지나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편의성보다도 경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 비축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나) 수요면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① 위에서 언급된 주요 產油國과의 다각적인 유대 확립이 적극적인 전략인데 대하여 원유도입선 다변화는 소극적인 회피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현재와 같이 주요 석유 수출국이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등의 OPEC회원국가들과 멕시코, 中共

등의 일부 산유국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전라이다. 따라서 82년까지 11개국, 86년까지 15개국으로 책정되어있는 정책은 현재와 같은 국제 정세에서는 일단 보류되어도 좋을 것이다. (미래 정책 4)

② 대체에너지 도입 역시 우리 나라 산업구조내에서의 代替 가능 범위가 충분히 연구 검토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선 순위가 밀로 내려 가야 할 정책이다. (미래정책 5)

특히 LNG도입과 같이,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추어져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앞으로 LNG수급 전망과 LNG 국제가격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에 따른 만반의 대비가 갖추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1978년 당시의 重化学 산유국처럼 국가적 부담이 큰 사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③ 油價自律化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할 정책이다. 실시하기에 앞서 경제적 정책적 그리고 사회적인 여건이 과연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경제적인 면을 보면 油價自律化의 전제 조건으로서 국제 원유가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현재 사우디 基準油價로 인하여 이란, 에콰도르, 리비아, 쿠웨이트등의 油價는 낮은 반면 인도네시아, UAE油價는 상대적으로 높게 策定되어 있기 때문에 原油導入이 어디인가에 따라 精油会社間에 상당한 수준의 營業損益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가 언제 基準油價를 28달러나 30달러로 내릴지 모르고 이에 따라 유가 단일화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精油会社의 경영성과도 합리적인 경영성과 보다는 「재수」에 依存하는 폭이 훨씬 높은 것이다. 정책적인 입장에서도 벵커-C 및 나프타는 제조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燈油는 서민 대중을 위하여 低價政策이 불가피하다. 또한 揮發油와 輕油에 부과되는 特別消費稅는 우리 나라 재정 수입의 8%*를 차지하는 중요한 稅源인 까닭에 에너지 정책의 범주내에서만 다룰 수 없는 문제이다.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우리 나라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건전한 경쟁상태에서 대등한 능력을 갖고 가격협상에 임하여 적정한 가격을 도출해 내는 과정

을 별로 경험하지 못해 온 것을 생각할 때, 어느 생필품 못지않게 국민경제와 福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石油製品 價格이 과연 합리적으로 책정될 것인가에 대하여 자못 회의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일단 油價自律化는 기본 정책 방향으로 채택하되 그 실시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신중히 하는 편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의 案으로서 油價自律化의 첫번째 해당 品目으로서 휘발유를 선정하여 1년 정도의 시험 시간을 갖고, 가격 추이를 관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油價自律化 품목을 확대하거나 또는 실시 범위의 확대를 보류하는 것을 提案할 수 있다. 필자가 휘발유를 첫번째 품목으로서 선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유회사들이 앞으로 油價自律化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할 전략은 석유제품 판매 구성에 있어 輕質油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附加價値를 극대화하는 일이며, 그 이유는 이미 III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精油会社들은 경질유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휘발유의 市場占有率을 높이는 데 注力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가격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휘발유 가격을 정유업체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引下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둘째 휘발유의 소비자는 대개의 경우 기동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販賣店의 선택이 자유스럽고, 이에 따라 공급자의 장소적 독점이 불가능하다.

셋째 비록 마이카 추세가 高調되고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도 당분간 揮發油의 소비자는 소득수준에 있어 中上層 이상일 것이므로 설령 價格이 인상된다고 할지라도 정부의 간섭이 덜 필요한 것이다.

네째, 휘발유가 전체 석유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휘발유가격 自律化에 따른 시행착오가 1년 동안에 여러차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 副作用에 따른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다섯째 휘발유는 이와 같이 제품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면서도 다른 어느 석유제품보다도 마스크와 일반 消費大衆에게 인식되는 지명도는 가장 높다. 따라서 油價自律化라는 기본 원칙을 일반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副作用을 줄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제품이야말로 휘발유라고 할 수 있다.

④ 그 동안 거론되고, 제도로서 채택되고 있으면서도 그 실적이 부진한 소비 절약 정책의 실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전략)*

현재 産業部門에 대하여 배정된 에너지 절약시설 자금 3,000億원 中 실제 용자확정된 자금이 1982년 3월말 현재 1,154億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제도의 운영에 있어 경직성과 함께 홍보 활동이 부족

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合理的인 제도의 운영과 함께 政府에서도 官僚的인 자세를 止揚하고 국민경제의 責在者라는 입장에서 합리화 지원자금의 소비자인 기업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을 정리하면(表 3)과 같다. *

〈表 3〉 오늘과 내일의 에너지 政策(시안)

현재 정책

미래 정책

- | | | |
|-----------------------------|---|--|
| 1. 국내 유전 개발 | → | 대륙붕 탐사 및 시추에 대한 기존계획을 앞당겨 실시 |
| 2. 불리한 도입선 및 도입물량 축소 조정 | → | 장기 계약의 내용 자체보다 계약 산유국으로서의 잠재력 및 한국에 대한 신의를 고려하여 계약 물량 조정 |
| 3. 원 유 비 축 | → | 현물 시장을 활용하여 경제성 있는 비축을 실시 |
| 4. 저 가 원 유 (안정기금 폐지) | → | 계속시행(원유도입선 다변화 계획의 축소 조정 및 보류) |
| 5. 대체에너지 도입 | → | 우선 순위를 하향조정. |
| 6. 석유제품 가격의 국제화추 | → | 1 차적으로 휘발유 가격 자율화를 1년정도 계속하여 그 결과에 따라 2차 자율화 계획 수립·실시. |
| 7. 에너지 소비절약(에너지 절약 시설자금 제도) | → | 시설자금 사용을 적극 장려 |

註：*1982년도 정부의 세수목표총액(관세포함) 5조 5,823억원 중 특별소비세가 8,610억원을 차지 하며, 이중 휘발유와 경유에 의한 특별소비세수입 목표액은 4,300억원이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본고에서 제일 마지막 정책 代案으로 제시한 까닭은 우선 순위가 가장 낮기 때문이 아니라 이 대안을 가장 강조하기 위하여 倒置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기업으로부터의 신청액은 15843억 원이다.

＝ 新刊紹介 ＝

82年 石油年報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各種 石油資料를 집대성한 82년판 石油年報가 나왔다.

大韓石油協會弘報室이 발행한 이 年報는 신국판 총 6백46페이지로 81년의 國內外 石油動向, 石油政策을 비롯하여 石油産業, 石油資料 및 統計 등 6부분으로 엮여져 있다.

또 綜合石油年報로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紀元前으로부터 최근까지의 世界石油史

年表를 비롯하여 부록으로 石油入門을 실어 초보자가 석유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이 年報는 統計부문에서 국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한 많은 수의 石油統計를 모아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배려했다.